



<목차>

- 여는 글

by 토로

- 못난이 이야기

하나. "못난이? 못난이가 뭘까?"

by 반짝반짝

둘. "03학번 못난이들의 이야기"

by 드브, 소향, 보라, 소영

- 콤플렉스 이야기

하나. 착한여자 콤플렉스

by 바이어

둘. 신데렐라 콤플렉스

by 후네

셋. 사내 대장부 콤플렉스

by 국회

넷. 외모 콤플렉스

by 광이소영

- HATE ME? 그 막이 오르다

하나. 순서소개

둘. 노래극 삽입곡

셋. 뮤지컬 개사곡

- 나누는 이야기

하나. 콤플렉스를 책으로 보자

둘. 여성주의가 궁금할 때

셋. 인터넷으로도 여성주의를 하자

- 마치며

by 프리



1. 여는 글

“당신은 얼마나 자유로운가요?”

by 노노

“당신은 얼마나 자유로운가요?” 너무 궁금하는 질문이기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자유로운 지 묻는 것에 대해요.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지 않고서는 어떤 문화제를 얘기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를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부모님들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 관습까지. 우리는 그 틀 안에서 자유롭고 싶어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들의 데이에 관한 것들 예로 들어도 쉽게 알 수 있죠. 오목한 코, 큰 눈, 세시한 가슴, 날씬한 다리 등 사회가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여성들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굳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는 남성들에게도 어느 정도 배수합니다. 적당하고 움직이고 여성들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남성이 된다고 사회는 끊임없이 말하지요.

하지만 어떤 세 사회 사회대 페미니즘 문화제 hate me?에서는 그런 사회적 강요들에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데이에 아니어도, 그런 남성에 아니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데일'이 아니어도, 그런 '하 나이'가 아니어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게 힘들 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사회적인 틀에, 사회적인 억압에 무의식적으로 맞추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 니다. 여성들은 왜 자신이 착한 여성이 되어야 하는지, 자신이 왜 순화모델과 같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지, 남성들은 왜 물어서는 안 되는지, 여성들을 왜 자신이 알아서 보상해야 하는 것지 적지 않게 생각해보지 못하고 남들이 그렇게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오지는 않 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고정관념들에 얽매어 스스로를 대외하지는 않 았는지, 스스로를 열등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다시금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좋 겠습니다. hate me? really hate me?

위에서 단절된 질문들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어떤 문화제의 주제는 콤플렉스입니다. 자신의 콤플렉스 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사회적인 기준에 자신이 따라갈 것은 아닌가, 자신만의 경계를 무시할 것은 아닌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들 고민하는 기회를 만들어보려 합니다.

문화제를 준비할 지 벌써 한 달이 가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열심히 준비를 하였고 27일이면 그 결과가 나오겠죠? 만약 그 날 공연을 준비한 친구들이 실수를 한다면나 공연을 잘 무리라고 해서 실망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문화제의 가장 큰 의도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 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지 때문입니다. 공연을 준비했던 친구들이 한 달의 시간 동안 느꼈던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물론, 공연을 보시는 관객 여러분들도 자신의 콤플렉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워지시길... Be free!!

2. 뭇난이 이야기

하나, 뭇난이? 뭇난이가 뭘까?

- 뭇난이를 소개합니다

by 반박반박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는 콤플렉스. 콤플렉스를 주제로 어떤 사회대 페미 니즘 문화제를 하기로 결정한 후, 가장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 바로 문화제를 함께 할 활동단 이름 '뭇난이'였다. (정말??)

무생기거나 어리석은 사람을 일컬어 부르는 말 1등/난/이, 자신이 가진 콤플렉스가 유난히도 도드라 지게 느껴질 때, 누가 나의 콤플렉스를 자극할 때, 나만 콤플렉스 속에서 최우적으로 거리는 것 같 을 때, 콤플렉스에 빠진 내가 대외도를 화가 날 때, 나를 둘러싼 모든 것에 짜증나면서 나 자신이 대 을 때 우리는 자신을 '뭇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나 자신에 대한 이러한 원망과 자학이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압을, 그것이 모두 내 탓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무난 나 자신도 그대로 받아들이 수 있는 여유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도 넓고도 아름다운 마음을 어떤 사회대 페미니즘 문화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길 바라는 매우 심오한(진짜??) 뜻 에서 '뭇난이'라고 활동단 이름을 정하였다.

문화제 제목 'hate me?'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활동단 이름 '뭇난이'는 어떤 심오한 의미와 더불어 그 땀을 (monni)가 가지고 있는 절박하고 생략 한 귀여움(과연??)으로 만들어 모든 사 랑에게 사랑받게 되었다^^. 더욱 이때 로 활동단들을 부를 때 '뭇난이들 모 여세요~' 라고 말하는 다소 못지 못 함 (재미있지 않아요??) 살짝도 생생한 것 지만 그 나름대로 '뭇난이'의 원래 의도 를 어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사회대 페미니즘 문화제 'hate me?'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뭇난이'란 자랑스러운 이름을 불러보며 자신의 뭇 난이라고 생각되는 모습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뭇난에 당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한다. 함께 외쳐볼까?

“우리는 뭇난이!”



둘. 03학번 못난이들의 이야기

첫 번째, 뮤지컬 팀의 닥트호스 드보~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전 약한 03 여정호입니다. 많은 다른 학우들과 페미니즘 문화제를 같이 준비하게 되어 기쁘네요. 전 뮤지컬팀에서 문화제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말마 전에 대동제가 있었지요. 많은 분들이 그럭저럭 저도 저희 약관에서 대동제를 준비하느라 분주하셨습니다. 페미니즘 문화제랑 대동제의 일정이 겹칠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죠. 문화제 준비를 하며 때때로 귀찮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가끔 내가 왜 문화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왜냐고 물어봐도 잊었습니다. 아니 사실 모든 행사를 함께 하다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럴 때마다 조금 더 힘을 내려고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인가를 찾아보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했던 일들에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디. 특히 오랜 페미니즘 문화제를 준비하며 느꼈던 것은 다른 행사와 달리 많은 부분을 제가 꾸며나갈 수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다른 행사의 경우 참여하는 형식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기본적인 판을 준비하는데 빠지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해나가는 방식으로 말예요. 오랜 문화제의 경우는 우리가 판을 짜는 부분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착이 많이 가는 문화제인 것 같네요.

저희 팀은 사내 대정부 컴플렉스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형마다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는 다양하겠지요. 저도 그렇고요. 그 중에서 어 사내 대정부 컴플렉스는 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때때로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고 난 여태도 된다고 규정짓고 살고있지 않나 물어봐 볼디다. 어떤 부분들을 어떤 문화제를 통해 완전히 깨버리는 건 무리일지도 모르니디. 하지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 물론 사내대정부 컴플렉스뿐만아 아니라 다른 컴플렉스들도 말예요. 굳이 다른 한 부분과도 만나게 되어 든가운 것 같습니다. 한 행사를 참여하다 보면 때때로 다른 한 친구들과도 만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좀 더 넓은 세상을 알고 싶은 마음어떻게? 물론 해오 문화제를 준비하면서 다른 한 학우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그 때 일적어나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 그런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문화제에서 뮤지컬팀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그런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나 우리 많이 친해지고 문화제 끝나고 만나도 친한 것할 수 있었을 좋겠네요(기^^)

뮤지컬이란 생소한 공무에 도전하여 느낀 것은 재미있다는 것어네요. 의외로 재미있어오. 노래를 게 사하고 부르면서 몸동도 넣고 하다 보면 즐거워지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어요. 사실 예치와 통치가 있던 하지만 사형이 하다보면 노래 막 가다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특히 정현이는 정말 보여 무거서 노래 부르기가 힘들어지지도. 아마도 뮤지컬팀 분들은 통 의하실 것 같네요. 정현이의 노래 부르며 오버하는 모습어한 정말 보면 볼 수록 재미있는 것 같어요.

근데 저희 팀 제릴라 퍼포먼스가 문화제 배로 전날어라지요. 오 책임감이 짝짝 드네요. 온 몸을 분상라 분위기를 띄워 분사디. 본인 자신을 해치고 충동질하는 많은 아니니 오해 마시길~! 어쨌든 문화제 전날 제릴라 퍼포먼스에 저의 힘을 배지하신 건 확실히 신대어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연습을 마크 다 끝내진 못했지만(연습의 끝은 잊지요. 저희는 완벽을 추구하니까) 문화제에서 여겼을 공연한다고 생각하니 순간 순간마다 흥분어 될 때가 많네요. 여경도 준비를 하며 느끼는 즐거움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대 남지 않았지만 더욱 열심히 문화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디. 우리 모두 페미니즘 문화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헤어질!!!

두 번째, 플레쉬 팀의 키다리 소방어 이야기**

저희 플레쉬 팀은 5월 19일 월요일에 후생관, 자하연 그리고 사화대 정문 앞에서 제릴라 퍼포먼스와 대입을 준비해서 보여드립니다. 일단은 페미니즘 문화제 홍보를 하고자 하였고, 여대 더불어 '신대렐라'에서 나오는 유리구두도 왜자자 읽어보자는 취지에서 짧은 공연을 마련했었죠^^

먼저, 대입에 대해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신대니다^^ 사실 대입에 맞춰 배운 대입은 속연한 마음에서, 하나 하나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일단 대공가요. 그리고 정해진 분위기의 노래, '유리구'에 가세은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여 노래의 가사는 어떤 행사와 딱 맞아떨어지죠. "내 삶의 주인은 배로 내가 되어야 해", "내 속에 다른 나 찾아 제 세상의 공연 위가 있는지 더 멀리 오를 거야" 등등은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해야 될까요? 대입을 하고 나면, 엔지 자신감어 후속 붙는 기분어었거든요.

다음, 제릴라 퍼포먼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볼게요. 제릴라 퍼포먼스. 저어겐 참 남성 형식의 공연어었습니다. 마치 사진의 한 정지해 역 본 동안 포즈를 취하고 정지해 있어 했다는 게 힘들기도 하었지만, 사실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학우들께서 단 1초라도 신대렐라의 유리구두가 뭇가 걸음했다는 생각만 하셨더라도 참 보람된 공연어었겠습니다. 하지만!! 어련히 신대렐라 동화를 단순히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제실 것 같아 짧은 생각어지만 여 마디 적어볼게요.

신대렐라의 유리구두는 역11지11입니다. 그라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어시죠? 자신에게 타인의 생각도 맞추려는 이야기 말입니다. 유리구두 또한 그렇습니다. 여자님, 아니 남성의 기준어 맞추기 위해 신대렐라, 여성은 자신을 희생해야 하고, 자신의 일부를 버려야 했습니다. 신대렐라를 어셨습니까? 배마 한 액자를 만나 평생 손어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살고은 여성들은 모두 생을 구두어 맞추고 싶었겠요. 여 어대기가 신대렐라어면 구한 된 것 어니겠요? 저는 다이어트 열풍도 여와 같은 액자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하게 보자면, 남자들에게 좀 더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기도 하구요. 물론 표현적으로 '나 는 남자들에게 잘 보여고 싶어서 다이어트 한다' 하는 여성은 없겠요. 그러나 하나 하나 따져간다면 궁극적으로는 아름다운 몸으로 남성들에게 호감을 사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여성들은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남성의 시각으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습니디. 내가 어 행동을 한다면, 제 남자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 행동은 여성답지 못하게 어닐까? 하는 생각들. 어겐 배렐으면 좋겠습니다. 어가가 여단, "나"로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자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페미니즘 문화제를 통해서 남학우들도 마찬가지로 좀 더 자유롭게 행동할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퍼포먼스는 계속됩니다. 많은 관심들 가져주세요^^

처음에 페미니즘 문화제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나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것도 없었거니와 그것에 대해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문화제를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왜냐하면 문화제는 '이 문화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는 페미니즘에 대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고 친숙하게 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재 나는 학회 세미나를 통해서, 그리고 페미니즘 문화제 교육을 하면서 '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관심 있는 '착한 여자 콤플렉스'에 대해 배우긴 했지만 아직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문화제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문화제가 단순히 '콤플렉스'에 대해 많이 알고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나 태도에 대해 자신이 문제삼을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고, 작은 문화제지만 어떤 것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할 일을 하고, 그 속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에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속한 팀은 어떤 문화제에서 '착한 여자 콤플렉스'를 노래극을 통해서 보여 준다. 사회 내에서는 여성들을 평가할 때 여자가 '착한 여자'인지 아닌지로 평가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여자는 늘 착한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중요한 일은 남성이나 집안의 의사결정자가 되려고, 여성은 이러한 결정에 따라야 하며, 남편이 희극할 시간에는 잘 밖으로 돌아다니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착한 여자'라는 또 하나의 신화에 대해 여성은 자신도 모르게 매몰되어 버린다. 생활 속에서 여성다워야만 한다는 생각이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다. 여자는 본래부터 정숙하고, 착하며, 겸양의 덕을 하고난다고 믿는 사회에서 '착한 여자'로 어려서부터 배워 온 여자는 주위 사람들의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소망을 자제하고, 일이나 배움마저도 포기한다. (우리 국공에서도 이러한 예를 가진 내에서의 엄마, 학교 내에서의 여학생을 통해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구 공간 공간에 노래를 넣음으로써 그 정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꾸며보았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성은 타인에게 의존해야만 생활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어 '타인의 눈에 보이는 자신'을 의식하면서 주변 사람들로 부터 좋은 여자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하며, 착하고 귀여운 여자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결국 자신의 욕망과 개성을 희생하려는 심리 상태'인, 착한 여자 콤플렉스를 가지게 된 여성들이 참으로 많다고 배웠다. 물론 이러한 콤플렉스를 가진 여성들을 배편하고자하는 것은 아니다. 나도 사회 내에서의 양극적 감정에 의해서 '착한 여자'라는 말을 듣기 위해 어쩔을 때부터 노력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런 여성을 배편할 만큼 나도 이 콤플렉스와 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분위기에 의해서 여성들이 남성들의 시각만으로 위축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문화제를 준비하는 것이고, 문화제를 만들어 가는 사람들, 그리고 관람하는 사람들이 1번이라도 나와 배우 한 생각을 갖게 느껴졌으면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그러기에 어떤 1회 페미니즘 문화제 잘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 노래극팀이 생각하는 많은 내용을 담아서 노래극을 잘 만들어야겠으면 좋겠다."

정적 '페미니즘'이라는 것을 배우면 배우수록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에 '아예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혼자 할 때면 부끄러워서도 화나기도 한다.
우리 모두 페미니즘 문화제 열심히 준비해요—꽃여팀!!!!

안녕하세요. 사회대 심리/일본 03학번 여소영입니다. 페미니즘 문화제에서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는 데요. 열심히 안니의 글한 부분으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

대학에 들어오니 정말 많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 동안 어떤 일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여가생활 계획이 많은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막상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자 시들해져 버려버렸고요. 해오봉에도 놀러갔고 뽀끼로 놀러갔고, 그러다 페미니즘 문화제를 한다는 말을 듣고 한 번 해보자고 생각하게 되었죠. 좀 더 바쁘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무슨 일든 해구 궁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니까요. 어떤 일든 것에 열심히 해보고, 궁대해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선배와 친구들을 만나고 어색하게 첫 인사를 하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릴라 퍼포먼스와 본편을 준비하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릴라 팀은 왜 콤플렉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릴라 퍼포먼스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처음엔 페미니즘 세팅을 하고 신체 각 부위에 콤플렉스를 매번에 표시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사진을 떠올리자는 여의미가 나왔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코입을 모아 놓았더니 결국 추해지더라는 여의미로 여의미면서 대남녀들의 사진을 조합해서 약간의 후형(?)을 연출한 뒤 세속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을 맹목적으로 추구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상 사진을 조합해보고 나니 너무 보기 안 좋았고... 의도가 잘 전달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서 다른 것으로 바꿨거든요. 그런 준비과정에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콤플렉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최대 있는 것일거예요.

원래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제릴라 퍼포에서는 가장 주축하는 역할을 맡아했습니다. 참 민망하기도 했지만 들여다 생각해 보니 재미있었네요. ㅋㅋ 물론 움직임에서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것이 언제나 미지미미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자매들해서 미미 하는 것도 걱정했었는데 배우고 나니 꽤 기대가 되네요. ^^

어제 내일이 드디어 문화제. 오늘 마지막으로 열심히 연습해서 내일 제대로 공연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



3. 컴플렉스 이야기

첫 번째, 착한 여자 컴플렉스

-착한 여자 댕머나기

by 박이어

한국에서 여성이 착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여성에게 있어서 착함은 '바르고 어질'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남성에게 순종하고 항상 경양의 자세로 남성을 대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불평하거나 실은 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여자는 현모양처가 되어야 하고 결코 자기 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거나 욕하고 생각하는 것을 극장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그렇게 해야 할' 때문이다. 어떤 의미든 여자가 하면, 그것은 곧 내서는 일이 되고 기다려야 하는 등 주위의 따가운 시선에 '그녀'를 질책한다. 그들은 스스로 위 굴 헤쳐나가고 하는 그녀를 힐난한다. 나는 유치원 교사를 대해 어떻게 했는지,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본보기에 그런 행동거지를 하고 다니나.

결함 여자, 독립적인 여자, 논리적인 여자, 똑똑한 여자, 주도적인 여자는 거부적 사회가 거는 바라는 좋은 먹거리이다. 그녀가 '말'을 할기 때문에 처벌당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설득력한,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착한 여자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자신들을 스스로 억압하고 순복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평생 무례함에 허덕이며 거만해, 다만 거만해 있다. 참하고 착한 여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강박 관념은, 여성 지식에게 공격을 가해지려는 많은 것들을 한바탕 불평도 하지 않고 포기해 버리게 만든다. 그래서 착한 여자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여성들은 자신에 전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그 대상에 배대한 원자라면 또 모를까.

왜 여성은 항상 보조적이어야 하는가. 왜 똑똑하면 안 되나. 성형 똑똑하다 한들라도 똑똑한 척 하면 안 되는 것인가. 변장은 남자가 하고 부변장은 여자가 하는 사례는 내가 초등학교 시절까지도 변변하게 먹어났다. 여학생들은 선생님의 질문에 불을 붙고래하게 불리고 수줍은 척 하는 게 대적으로 어 거졌다. 체육 시간에 팔을 돌리며 뛰어 노는 여학생들은 같은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배제되었다. 그들은 배우고 그녀를 선배수여라고 불렀다. 그들은 여자는 고신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을 인용하여 그녀를 통제하였다.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것인가. 여성들이 좀더 자유로워지려면, 여성다워야 한다는 생각, 착해져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착한 여자 컴플렉스는 거의 모든 컴플렉스가 그렇듯 피시스와 노 모스를 동원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언위적으로 주어진 강요나 원칙-도모스에 자신-피시스를 제외 영구다 보니, 모든 여성이 하나 같이 '다' 착한 여자가 된 것이다. 여성이며, 여제 그런 희생양, 훈련 피는 그런의 것으로 충분하다. 스스로가 취급 일단 억압을 주고 자신 있게 살아야고 싶지 않은가.

만어공주, 대 당는 아내, 그리고 여 왕의 거의 모든 어머니들은 거의 다 사회가 인정한 착한 여자들이다. 우해 여하르트는 '착한 여자는 하늘나라로 가지면 나쁜 여자는 어둠으로 간다'는 말을 전하며 여성들에게 길은 반성을 요구한다. 여제 자신 있게 보여고는 싶지만, 고집스럽게 보일게로 격정하지 말자. 여성은 남성에 비해 온순해야 하고 친절해야 하며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펼쳐버려라. 여제적 무당 욕하고 어거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면 모든 일들을 기억 속에서 재꾸어 지워버려라. 그러나 착한 여자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바로 '스스로를 굴복하는' 것이다. 자기 굴복은 자신을 순복하게 만든다. 조금 부당스럽고 힘들더라도 'No'라고 말해보자. 한 번쯤 용기를 내어 조금 불손해지고 당당하게 자신에 요구하는 것을 살펴보자. 거기엔, 또 다른 달신에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달신 모습이다.

두 번째, 신데렐라 컴플렉스

- 우리구두 신고 공주되기? oh no~

by 루니

서양 동화에 나오는 신데렐라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계모 밑에서 구박을 받으며 허드렛일을 하다가 구사한 왕자님을 만나 단 한 순간에 신분 상승을 해 행복한 왕자녀가 된다는 이야기. 신데렐라 이야기는 서양 동화이지만 여제 배수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있다. 주인공이 계모 밑에서 고생하다가 원님과 결혼한다는 내용의 <동화판권>가 바로 그런 이야기이다. 사실 이런 류의 이야기는 그 외에도 매우 많다. 한때 TV에 방영되어 폭발적인 인기를 기록했던 <동화판 권 소녀 권디>나 <키다리 아저씨> 등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동화들이 만들어진지 오랜 시간에 지난 지 금에도 유행하다 로베르와 리처드 기어가 주연한 <프리티 무언>과 그 배수한 류의 영화는 수도없이 존재해 나오고 있다. 모두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자극하는 전형적인 작품이다.

단연한 말이지만 신데렐라 컴플렉스란 용어는 바로 동화 <신데렐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스스로 삶을 계획하기보다는 남성의 힘을 빌려 행복을 얻으려는 여성들의 의식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클레트 라울은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좀더 부각시켜 '억압된 태도와 불면, 위압해 여성 의 약의성과 의무를 한적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대가형 상태로 묶어 두는 심리 상태'라고 정의했다.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지닌 여성들은 일종의 정신적 불구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은 날 때부터 평등하고,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여성이 자신이 여신 배우자 남성에 기대어 살아가려 한다면 결국 그 남성에 종속된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결국 그 여성은 독립된 인격체의 삶을 포기하게 된다. 형식적으로 날 배 평등해 있어 배수한 오노남에도 의외로 신데렐라 컴플렉스는 많은 사람들의 무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부모들은 딸에게는 학력이나 성공보다는 시집을 잘 가기를 기대한다. 여성의 취업률이 높았다고는 해도, 열심히 공을 가지고 일하면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일을 그만두는 경우는 많다. 게다가 지금 열심히 살아가는 듯 보이는 많은 대학생과 직장인 여성들도 있어, 한 풀리거나 당당할 때면 '아잉, 이러다 안 되면 시집이나 가지라'는 말을 내뱉는다. 물론 지금 세상에서 여성이 과대성현을 해 가는 것이 남성에 비해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한 두 번쯤 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존적인 삶이 만드는 온갖 부정적 측면들을 우리는 여제 여제까지 우리 및 세대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종속적인 상태에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일구어 내는 주체적인 삶을 살려하지 않는다. 그렇게 인생의 행복도 불행도 타인의 상황에 맞추어 흔들리는 삶 속에서 자곤감어나 행복을 느끼기는 힘들다.

문제는 신데렐라 컴플렉스가 심사리 극복되기 어려운 점 중 하나가 그것에 '여성'의 본성인 양 도치에서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남성에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것이 여성의 본질인 양, 연애관계나 결혼 관계에 관한 글 또는 영상 글에는 그러한 점을 기정사실화하고 미화하는 것들도 수도 없이 많다. 이러한 미화들이 사회성현들을 반복적으로 사회화시키고 있는 것은 실제 여성의 본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대대적 부채질 하고있는 것으로 매우 부정적인 현상이다. '신데렐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여성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여성을 남성과 같은 가능성과 인격을 지닌 존재로 대우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사내 대장부 콤플렉스

- 사내에 가는 길?

by 국희

안녕하세요.^^ 전 사내대장부 콤플렉스 팀장 국희입니다. 페미니즘 문화제를 준비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 가네요. 그 동안 동기들, 후배들, 선배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죠. 우리가 했던 회의들, 그 속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네요. 처음엔 막막하기만 했던 것들이 조금씩 제 모습을 찾아가고, 각 팀별로 본격적인 연습을 하는 길 지켜보니, 우리가 어떤걸까나 해냈다는 게 잘 대견하기도 하고, 여제 정말 문화제가 며칠 안 남았다는 게 실감나기도 하는군요.^^

콤플렉스, 사람마다 각자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도뿐 아니라 다양한 콤플렉스. 그 중에서 우리 팀에 어떤 문화제를 통해 풀어내고자 했던 것은 '사내대장부 콤플렉스'입니다. 예니, 그게 뭐냐구요? ^^ 음, 쉽게 설명하자면 이 콤플렉스는 "강한 남성"을 원하는 사회가 우리를 누르는 억압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남자는 페미니스트 딱 세 번만 물어봐 한다면 어쨌든 꽤 끊임없이 듣는 여대이가 정말한 여가 되었군요. 왜 그러세요? 남자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남자는 자신의 승리를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무슨 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 또 그 안에서 강해지기를 "강요받는" 남성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남성들에게 좋지 않다고 "강요"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강해져야 하는 남성들은 알게 모르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화하구요? 페미니즘은 분명 여성주의인데, 왜 사내대장부 콤플렉스를 다루느냐구요? ^^ 페미니즘은 크게 보아 가부장제라는 거대 계도에 반하는 운동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억압을 받고 있고, 어떤 사회든 페미니즘 문화제에서는 그 지점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

그럼 여제 우리의 사내대장부 콤플렉스 팀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내는지, 궁금하시죠? ^^ 우리는 사내대장부 콤플렉스가 한 남자의 전 인생을 통해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남자의 출생부터 중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를 유지할 형식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소꿉놀이를 하던 어린 시절, 공학고에 들어가서, 첫 연애를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여제 성인이 되어 취직을 하기까지-여제 게 내 시기를 통해 남성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 사내대장부 콤플렉스에 겪어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어요. 우리 팀은 노래를 직접 부를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기대 되냐구요? 기대 많이 하세요. 분명 실감 나실 겁니다? ^^

알게 모르게 우리를 누르고 있는 콤플렉스들. 우리는 여제 좀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예니, 자유로워져야 하죠! 사내대장부 콤플렉스 팀은 여러분께 우리가 알면서도 지나쳐 왔던 문제들을 꼬집어 드리고 싶어요. 꼬집으면 감시는 아프고, 억압받으면 조금만 지나면 전보다 조금은 더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 자유로운 축제, 페미니즘 문화제, 우리 꼭 함께 해요~"

네 번째, 외모 콤플렉스

- 주문을 외우자!

by 국희영

잘 생각하고 먹으면 좋다. 청인실에서 일단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 초콜릿 먹고, 한 번 맛을 물어 보고 싶고, 다른 사람이 먹으면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은 것도 물어볼 것 같다. 가끔은 무생인 사람이 먹는 데서보다 잘 생긴 사람이 먹는 데서가 더, 큰 효과를 가져 오는 것 같기도 하다. 여제 얼마나 복된 거! 그러나 어쨌든 이런 행동은 지금의 우리에겐 금지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그래, 예쁘고 잘 생긴 게 좋지 뭐... 예후... 난 언제 한 번 이렇게 되어 볼까?"

잘 생긴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 하는 것이 대부분 이런 행동 내뱉으며 분석으로 끝나게 되는 것에 비일배제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의 우리에겐 예쁜 사람들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부당해 되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예쁘고 잘 생기지 못한 것은 뒤떨어지고 열등한 일여 되고 기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기리에 나가면 전부 나보다 예쁜 사람들도 있다. 난 좀러해 보여고 유쾌히 뒤떨어져 보인다. 나에겐 무생인 것이 콤플렉스다!!'

여제 잘 보구려다. 도대체 어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얼굴이라고. 누가 정해 놓았는가? 시대에 따라 여의 기준이 변한다고 배우지만, 사회에서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여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 가부장제에 의해서 통제 당하고 있는 여성의 대(여제 대)라는 존재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이 매우 언더블라드. 최근 들어 상용화 되는 주제를 보여주는 남성의 대.1) 그러면서도 가부장적 수성을 입지는 않고 있는 '여름다운' 남성.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공생관계로 결합했다. 여를 대중에게 전달하여 획일적인 기준을 조정하는 대중매체는 외모 콤플렉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매체다. 우리 시대의 권력은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다가갈 수는 없다. 나에게 어떤이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만, 스스로 볼 수는 없다. 과연 그렇게? 여제는 어떤을 건 자만이 볼 수 있는 주문인가?



그렇다면 언제까지 사회와 구조의 탓만을 할 것인가. 언더블라드.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만 있다면 언더블라드 볼 수 있는 것이 콤플렉스이다. 외모 콤플렉스를 생는 것은 쉽다. 편하게, 나의 모습을 긍정하고 살면 된다. 어쩌면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박. 그 정도 긍정히 따가운 압박을 무시해야 하는 여제 생각지도 못한다. 그렇지만, 당 그대로 무시하자. 왜냐하면, 그것은 무시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의 무시는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여제지 않은가. 나를 긍정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러니, 여제 우리 모두 행복하자. 아무도 외모 때문에 뒤쳐지지 않고, 경쟁적으로 살지 않으며,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세상에서.

1)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가진 외모 콤플렉스와 남성이 가진 외모 콤플렉스가 동일한 수준이라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그레 있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성이 받는 억압의 정도가 남성보다 훨씬 크다.

4. HATE ME? 드디어 막 오른다!

제 4회 사회대 페미니즘 문화제

'HATE ME?'

사전매당

- 권력과 함께 하는 게임

- 못난이들의 마입 하나 '소녀의 로망' (아즈망가 대왕 삽입곡)

본매당

- 그림자극 못난이, 여행을 떠나다

- 노래극 착한 여자는 이제 그만

- 플랙시 신데렐라, 결혼 후에도 행복해?

- 퍼포먼스 가면 벗어 던지기

- 뮤지컬 중력 고백, 싸나이 일생

- 영상 못난이 일기

- 못난이들의 마입 둘 '뮤지컬' (임상아)

그리고, 모두 함께 신나는 파티를~

▷ 노래극 삽입곡◁

나약한 모습으로 지내며 그들을 따라왔던 이유는 소년을 좋아하는 현실이 태어난 세상일거야
지금도 우린 절망하고 있는데 오히려 너는 사랑을 받고 있지 사랑의 마음을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2.1.5의 회장 2.1.5의 빌 역들의 고실한을 빌리리

2.1.5의 류 2.1.5의 빌 절망하는 세상이 되어조길 기도하네

-여운문, '2.15의 외침' 중

저도 재촉하지 마 허질 것만 같아 아직 끝이 아니라 난 님 믿지 않아 난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너나 돌아봐 멋대로 멋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내 멋대로 할거야 그해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걸 왜 알아들
이지 못해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두듯이 그 무엇도 갈로할 수 없어

-백대대, '거부' 중

얼어혀 제발 다시 한번만 두려움에 맡고 있어 얼어혀 제발 다시 한번만 단 한번만 이라도

나 돌아갈때 어릴 적 꿈에 나 돌아갈때 그곳으로

-윤도현밴드, '백설사탕' 중

알로만 그대들고 또 또 또다시 그러면 어떡하니 자꾸 자꾸 그럴수록 사랑 사람이 사람이 안보이잖아
아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아 여보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경수정, '정신 차려' 중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들이 때문에 참 한마디 못하고 해버릴 수 없는 걸을
혼자 지닌 채 그같은 인생 길을 허락하면서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냈나 여자들 일생

-여대자, '여자의 일생' 중

내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많아 많아 많아 나는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많아 많아 많아 나는 업자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을 뿐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

-자유권, '열대' 중

침버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발을 많이 먹어도 배 안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아여 머리에 푸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내 그로한 눈빛을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입치복음법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젢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에도 막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걸을 심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동동해도 다리가 예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벤정성, '외향사정' 중

남자 : 당신 왜 날 미워하나? 당신 왜 날 안해주나? 두피 두-

여자 : 당신 왜 날 무시하나? 당신 왜 놀림이 없나? 두피 두-

남자 : 시끄러워, 귀찮게 굴지 마.

여자 : 내 인생이지, 내 인생이냐

-황태수, '남자/여자' 중

▶ 뮤지컬 개사곡 ◀

(#의 원곡은 한스벤트, <로네스>입니다)

1. 율기

소꿉놀이를 했어 오 친구들이 불렀어/ 축하하자며 나를 끌어냈어
기다가 넘어졌어 하지만 울 수 없었어/ 왜냐면 나는 남자니까

원곡 : <죽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하할아버지는 우는 남자애겐 선물을 안 주신대
산하할아버지는 맑고 개신대 누가 짜나인지 기절연지 짜나이면 좋아하신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산하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하할아버지는 짜나이에겐만 선물을 주러 오신대

2. 형 쓰기

여자애가 불렀어 오 집 들어 말했어/ 나도 힘든데 억지로 들어줬어
할 수 없었어 들 수 없었어/ 왜냐면 나는 남자니까

원곡 : <머릿가 2>

기운 선 천하장사 무죄로 만든 남자 책먹만할 여자보로 진짜 사나이
힘없으면 매달리고 힘있으면 대접받네 모두들 생각해봐 힘만 세면 남잔가
무죄할 무죄다지 천하무적 근육맨 힘세야 되는 게 어느 나카 법인가
집 못 들면 어떤가 나도 사할이야!

3. 연애

첫 연애를 했지 난 너무나 좋아했어/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
하지만 그건 나의 편견이었어/ 보호 아닌 사랑을 해야해

원곡 : <그녀의 매력>, 송경민

뭐야 세상이 변했어,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 해 작심삼심 상하는데 이상하게 더 골려
당당한 나 모습이 연지 매력 있어 좋아 한번 시귀여보자 내 맘을 이미 뱉어 갔으니
누가 먼저면 어때 좋으면 그만이지 사랑에 무슨 격식이 필요하겠어
난 난 남자니까 널 정말 보호할게 양면해 쳐야해 난 난 남자니까 난 널 지켜줄 거야 걱정 마

원곡 : <난 남자다>, 김창준

바람아 불어라 못 다한 얘기를 이제 남길었어 웬말 알해보련다
니에게 했던 말을 나 너무 미안해 나의 편견 이제 good - bye

4. 가족 부양/성공

회직을 했어 삼사에게 구박받았어/ 하지만 그만 둘 수는 없어

우리집에서 나만 먹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원곡 : <하이퍼트 광고 삽입곡>

이것도 못하면 당장 사료 써봐

한번만 봐봐요 가족이 있어요/ 재가 사료 쓰면 가족이 굶어요/ 재발 한 번만- 봐주세요

원곡 : <아버지 청춘>, 오기택

이 세상에 남라고생 타 같은 고생 /심사한해 구박받고 눈물이 땀

사료 들고 고민하는 남자들인데 성공해라 떠밀면서 욕까지 먹어 /나는 이제 과로 탓할 숙여만 간다
(해이) 괴로워 괴로워 남자의 청춘 살려라 살려라 남자의 인생

5. Ending

원곡 : <I'll follow him>

I'll follow me 내 삶은 내가 만들 거야 더 이상 없애진 않아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자유롭게

I'll follow me 못난이라도 나는 좋아 사내다움 이제 싫어 날 가든 몸을 벗어나 자유롭게 나를 사랑해

I love me I love me I love me 나를 위해 follow, I'll follow, I'll follow

I'll follow me 내 삶은 내가 만들 거야 더 이상 없애진 않아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자유롭게

I'll follow me 못난이라도 나는 좋아 사내다움 이제 싫어 날 가든 몸을 벗어나 자유롭게 나를 사랑해

(I love me) oh yes I love me, (I'll follow) I'm gonna follow

(True love) I'll always be my true love

(Forever) from now until forever

I love me, I love me I love me 나를 위해 follow, I'll follow, I'll follow

I love me, I love me I love me 나를 위해 follow, I'll follow, I'll follow

더 이상 없애진 않아 우리 함께 가는 거야 자유롭게 나를 사랑-해-



5. 나누는 이야기

<컴플렉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 「얼굴 가지 여성 콤플렉스」/ 여성을 위한 모임 / 현암사

여성과 컴플렉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 작한 여자, 심대령과, 슈퍼무단, 장녀 컴플렉스와 성, 외모, 지적 컴플렉스 등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컴플렉스들에 대하여 간단한 심리테스트와 더불어 소개하고 있다.

- 「얼굴 가지 남성 콤플렉스」/ 여성을 위한 모임 / 현암사

「얼굴 가지 여성 콤플렉스」와 마찬가지로 얼굴 가지의 남성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 사내 대장부, 우당, 대농민, 장남 컴플렉스와 성, 외모, 지적 컴플렉스 등 여성과 컴플렉스와 작을 이루는 남성의 컴플렉스에 대해 소개한다.

- 「예쁜 얼굴 콤플렉스」/ 사라 할프린 / 최순희 역 / 문학사상사

한때 여성을 괴롭히는 컴플렉스인 외모에 대한 강박관념을 분석한 책. 외모에 대한 무한 무의미 강박관념이 결코 현실적 지분적 문제가 아니라 뿌리깊고 복합적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리고 그 강박관념은 가부장적 사회의 소산이라고 말한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과 미모는 곧 힘이고 권력이며 성적 매력에 큰 여성일수록 자신의 육적 당성을 위해 더 큰 힘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항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주체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을 합리화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 「악이 되는 동화 특이 되는 동화」/ 심혜련 / 이프(if)

대여가 성에 따라 태는 작별대우를 그대로 반영한 동화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많은 동화가 등장인물에 대한 성적 판정과 고정관념을 드러내고, 그로인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대의들에게 주입하고 있다는 것. 악이 되는 동화는 주인공들이 남녀의 고정된 역할과 관념에서 자유로운 것, 등장인물들이 맺는 인간관계가 행동할 것, 행하는 세태 속에서 가치 있게 여겨야 할 사고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제시할 것 등의 기준을 제시한다.

- 「다이어트의 성정치」/ 한서열 / 책세상

다이어트로 대표되는 여성들의 「외모 관리」에 대한 분석. 그동안 개인적인 영역으로 치부되던 여성미용, 그리고 그에 대한 고단과 불안을 사회적, 정치적 영역으로 끌고 나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즉, 개인미의 신화이라고 여겨지던 「다이어트」가 사회적으로 강제된 규율이자 이데올로기라는 것. 이러한 파악을 통해 오랫동안 여성과 미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된 성별간의 권력 관계를 간파하고 그 두터운 벽장을 깨치고 나을 것을 권유한다.

- 「이미지와 현실사이의 여성들」/ 수잔나 D. 윌터스 / 김현미 외 역 / 또 하나의 문화

여성주의에 기반한 문화 분석을 통해, 여성이 미디어에서 재현되는 방식을 비판할과 동시에 대안적이고 대항적인 문화적 이미지들을 만들어 나가는 방법론과 이론들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여성주의가 궁금하다면...>

- 「이갈리아의 딸들」/ 게르드 브란튼베르그 / 황금가지

성별 관계에서 권력을 가진 여성과 권력이 없는 남성을 상상하여 쓴 소설. 현재 우리 사회에서의 성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이갈리아」라는 가상 공간을 무대로 상상력과 재치를 통해 생동했다. 곳곳에서 튀어나오는 웃음 속에서 일상에 묻혀있는 가부장적 사회의 권력관계를 새삼 느낄 수 있는 책.

- 「남성과 여성이 다르지도 똑같지도 않은 이유」/ 캐롤 타브러스 / 또 하나의 문화

각종 여성학 수업과 세미나에서 애용되는 「기본서」라 할 수 있을 책. 작가는 항상 객관적인 듯 했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단지 「정상남성」 이데올로기를 폭로한다. 작화와 불평등을 생산하는 권력관계의 분석을 통하여 남성과 여성이 「따르 또 같이」 존재하기를 꿈꾼다.

- 「여성, 몸, 성」/ 장윤필화 / 또 하나의 문화

한국 사회의 남성중심적 성문화, 성매매와 일상화, 직장내 성희롱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성차별적 성인식과 여성 세습영리와의 통제와 왜곡에 대해 알려준다.

-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정희진 / 또 하나의 문화

가식복과 피해 여성과 가해 남성의 실종 단락을 통해 피해 여성과 일당에서 아내 폭력을 배려한다. 아내 폭력을 생산하는 것은 가부장적 구조라는 사실을 폭로하는 책.

- 「행복한 페미니즘」 / 별 속스 / 백년글사람

"페미니즘을 생각해보고 생각해보고 지혜와 역량을 증식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라는 작가의 말대로
"그러기에 페미니즘을 남성과 여성, 여권과 사회적 소수자, 정치적 거부당적 자본주의에 시달리는
제3세계인들 모두를 위해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세상 열에 두개 열에 열을 만큼 우리의 작은
여성들을 위한 미시 여성적 서적이랄까. 바로 지금 당장부터라도 내 생활을 교정할 수 있는, 새롭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다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

<하나 더, 여성주의를 인터넷에서 찾자!>

www.unninet.co.kr

인터넷에는 '여성주의'가 숨어있는 마음'이라는 컨셉으로 각종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활성화되어있는 곳이다. 작기
만의 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가 꽤나 끈끈한 곳.

www.jouissance.pe.kr

서울대학교 여성주의 가치 언론 주이필스의 홈페이지. 현재 4호까지 발행되었으며 6월 초 5호 발행
예정. 홈페이지에서는 기획과 칼럼 뿐 아니라 관악 내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보도와 각종 언론의
여성주의 관련 뉴스클리핑을 제공하고 있다.

www.ildaro.com

다양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매체로 연결하고자 오인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여성주의 웹진 '일다'의 홈
페이지. 기존의 매체에서 듣지 못했던 목소리들을 들려주고자 현장에서 느끼는 여성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를 던진다.

dafara.jinbo.net

한국 최초의 페미니즘 웹진인 '달나라 말세로'. 각 로마다 특집한 주제를 통해서 여성주의를 이야기
하며 언어, 번역, 정치적으로 올바른 과학 등의 그림 코너들이 자리잡고 있다.

마치며

by 프리

문화제다. 한 달 전부터 책을 돌돌 구르며 일정을 맞추며 정신을 차려 놓았던 문화제다.
같은 나오지 않았고 정류하는 그지 돌아왔다. 지난한 과정, 하영영에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글씨들을
꺼워 맞추는 작업이란 놀 그칠듯한 재미는 없다. 하지만, 그 속에서 떠올랐던 일곱들, 군소리 없다. 다
달하는 내 목소리에 글씨 하나 둘씩 물리던 작한 여어들. 그 여어들 손에 꼭 쥐여주기 위한 자료집.
(물론 놀러온 분들에게도 꼭 쥐여드리도록 하겠다..^^)

페미니즘 문화제. 낯설 수도, 익숙할 수도 있는 이름이다. 페미니즘 문화제란 다른 어떤 행사보다, 스
스로가 참여한다는 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마
련인데, 페미니즘 문화제는 정말 그렇다. 관객들에게는 대단한 여가이지만, 그래서 무난어들에게 존재하
는 과정에서 얻어갈 생각과 느낌들이 가장 중요하다. 말로만 여성주의를 하는 것에 아니라, 스스로 생
각하고 만들어가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

누군가 어떤 질문을 했더라. '다른 단체들은 보통 사회적 여부와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무
독 여성주의 쪽에서는 좀 사소하다 할 수 있는 주제로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요?' 왜냐
하면, 그것이 여성주의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사회적 여부 속에서 문화 가는 여성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여성주의가 아닐까. 일상 속에서, 한 명
한 명의 사소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굳이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로 건너가지 않더라도, 왜 얼마
동안 질문들을 해야 하는지, 왜 말들만 집에 일지 돌아와야 하는지를 생각해볼까, 그것은 한 명의 문
제가 아니다. 모두의 문제이며, 그래서 함께 얘기해야 할 문제이다. 사소하게 보일수록 그것을 경시하
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법. 여성주의는 사소한 것의 중요성을 잊지 않는다.

컴플렉스도 그러한 사소한 하나의이다. 그저 내 귀가 조금 작고 몸무게가 조금 더 나가는 것. 단지
나만 눈 앞 질 수는 알지못한 어지러움이 되길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만 '사내'의 운명운명을 바
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만 돈 없고 능력 좋은 남친질을 찾으라는 강요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여
기 저기서, 나에게서, 나의 친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 나의 행동들 때문이라든가 지워버리기에는 현실적
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사소한, 그 현실적들을 갖고 넘어지며, 사소한 컴플렉스를 뒤집어 드러내는
것이 무난어들의 이야기. 너와 나의 길은 컴플렉스를 여가시키고, 너와 나의 다른 컴플렉스를 여가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초대된 당신. 초대에 감응한 당신에게 감사하는 말.
그리고 한 달 동안 행했거리는 나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안 도망가고 열심히 온분한 무난어들에게 감
사와 동시에 축하하는 말. 우리 드디어, 문화제 한다!